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3호 [루게 제23135호] 주체99 (2010)년 7월 2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러져오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창공높이 메아리쳐갔다.

눈시를 적시며 걱정의 환호를 터치는 전체 참가자들은 군인가족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어 선군시대의 어엿한 녀성혁명가로, 새 문화의 창조자로 키워 주신 아버지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

며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우동측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군시대에 창조된 새 문화의 자랑스런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비상한 열의를 안고 경연에 참가하였으며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이 자넘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예술소조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소조원들을 비롯한 모든 군인가족

들이 앞으로도 불라는 조국애와 혁명적 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며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었을 뿐 아니라 또다시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빠에르 은쿠룬지자각하

나는 부룬디독립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오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99 (2010)년 7월 1일 평양

우리 농민들이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 농촌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감회깊이 더듬어보노라면 정진 직후 중산군에 새겨진 잊지 못할 화폭이 송엄하게 안겨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생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의 가을

친아버이사랑으로 이어진 자욱

어느날 어머니수령님께서 중산군 이암리의 란춘부락에서 한 밤을 보내시였다.

어들은 서서히 가서지고 하늘은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부락의 한 일꾼과 함께 무릎을 치는 풀잎들에 옷자락을 적시며 마을앞에 있는 늪가로 향하시였다. 늪가의 새벽은 무척 고요하였다. 이따금 가을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갈대의 설레임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에 놀란 물오리들이 푸드득거릴뿐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물의 깊이며 그림에 걸린 시커먼 땅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늪의 면적을 가늠해보시였다. 어림잡작으로도 10만평은 실히 되어보였다.

아침식사가 끝나고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품 들어 찾아내신 비옥한 땅을 바라보시는 그의 안팎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렸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조함원들에게 늪에 톱을 막고 한 10만평 눈을 풀어 란춘부락을

중산군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고작 해야 반두질로 붓어 몇마리밖에 견져내지 못하던 그 늪이 환생을 내는 풍요한 논으로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닐수 없었다. 일시에 환생을 올리는 농민들의 귀절에는 아득히 펼쳐진 기름진 논에서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소리가 금시 들려오는듯싶었다.

이른새벽 우리 수령님의 족쇄 《산책》, 그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 헌신적 자욱자욱이었다.

본사기자 황명희

일심단결의 전통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보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상징이며 우리 혁명의 백승의 기치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혁명대고조의 불길진동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일심단결의 전통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입니다.》

혁명은 위대한 령도와 전통의 빛나는 계승으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조선혁명은 일심단결로 개척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펼쳐왔다.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부리로 되는 《3. 1》의 전통도 일심단결의 전통이며 준엄한 항일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한별용위정신도 가장 숭고한 단결의 정신이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적단결이며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뭉친 도덕적 단결이다. 탁월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위대한

지도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숭고한 도덕적리로 결합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단결이 가장 위력하고 공고한 통일단결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 일심단결의 위력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더욱 높이 펼쳐지고있다. 지금 우리 조국땅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의 세차게 타고오고 도처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모진 시련을 파감히 뚫고나아가는 우리 인민만이 펼쳐놓을수 있는것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세기를 이어 온갖이 계승되는 일심단결의 전통은 오늘 천만군민이 수령결사옹위의 강력한 성세를 이루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되고있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민족단결의 명령이고 미래이다.

우리 혁명에서 일심단결의 전통은 곧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으로 빛

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업적꿈모에 매혹되어 수령님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누리에 불꽃이 되고 철쇄를 마스는 마치가 되어 수령님을 옹호보위한 투사들이 바로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었다. 이 열혈의 투사들에 의하여 과장과 분별로 얼룩진 민족수난사에 중지가 적혀지고 우리 혁명은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성세, 방패가 되어 한목숨 서슴없이 비쳐싸운 참된 혁명가들의 값높은 위훈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루어진 실무적결합에서는 이렇듯 고결한 정신세계가 나올수 없다. 그것은 오직 령도자의 사상만이 맥박치고 수령과 전사들이 혈연적누대를

의 간섭책동이 또한 도수를 넘어 서고있다. 그러나 원수들의 그 어떤 책동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놀래울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심상상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두 계급의강적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지켜낼수 있는 비결도 단결의 힘에 있으며 강한 자주적대를 세우고 자위적 국방력을 천백배로 다지며 승승장구해온 근본원천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에 있다. 이런 위대한 단결이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체제봉쇄에도 단결하지 않고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고 단과 시련을 파감히 헤치며 강성대국의 령명을 안아올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단결은 곧 자주고희이며 승리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단결은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우리 조수령과 전사들사이의 혈연적누대와 같이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의 간섭책동이 또한 도수를 넘어 서고있다. 그러나 원수들의 그 어떤 책동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놀래울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심상상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두 계급의강적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지켜낼수 있는 비결도 단결의 힘에 있으며 강한 자주적대를 세우고 자위적 국방력을 천백배로 다지며 승승장구해온 근본원천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에 있다. 이런 위대한 단결이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체제봉쇄에도 단결하지 않고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고 단과 시련을 파감히 헤치며 강성대국의 령명을 안아올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단결은 곧 자주고희이며 승리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단결은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우리 조수령과 전사들사이의 혈연적누대와 같이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령도자와 뚝도 하나, 마음도 하나, 지향도 운명도 하나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일심단결의 전통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기에 내 나라에는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우리 조국은 후대들이 자자손손 행복을 누리는 민족번영의 터전으로 빛날것이다.

우리 혁명의 고귀한 일심단결의 전통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필승의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견줄수 없는 김일성민족의 제일가는 정신력,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천만민족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에 대한 확신이 어려웠다.

우리 인민은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고 중대한 투쟁과업이 나설 때마다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왔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진실로 받들어나가는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천리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었고

속도전의 북소리높이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열려지게 되었으며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10여년간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강성대국 건설의 거창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야말로 무한한 힘을 낳는 원천이며 조국방위에 강성번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우게 하는 영혼적인 담보이다.

오늘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자랑찬 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주체철이 사மு초르치고 주체섬유와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고있으며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하게 된것은 전체 인민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이룩될수 있는 일심단결의 위대한 승리가 고귀한 재보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적단결의 전통을 빛내이며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준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려는것은 우리의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며 백승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전통을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대번영의 해로 빛내일것이다.

서 병 호

한없는 그리움이 낳은 총정의 열매

지질학연구소 과학실험기구연구집단 과학자들

7월이 왔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그의 영생을 뜨겁게 기원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지질학연구소 과학실험기구연구집단의 과학자들도 있다.

이들이 바로 지질탐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땅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널리 알려진 오광석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립없는 의지이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 피눈물의 해로 새겨진 1994년 7월이었다.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민족의 대극장에 산천초목도 비분해 멸된 그 때 남다른 사연을 안고 절절한 마음을 감지 못하는 한 과학자도 없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바라시던 기계를 만들었는데... 조금만 더 힘껏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빨리 해냈다면...) 가슴을 치며 울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는 오광석동무였다.

그의 앞에는 바로 며칠전에 끝내내 완성해낸 CT탐사기구가 놓여 있었다.

시추를 하지 않고도 땅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탐사기구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지 하단층촬영설비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지질탐사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환히 꿰뚫어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땅속에 파묻혀있는 자원을 캐내지 못한 편지 그것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관심하신것이 바로 현대적인 탐사설비문제였다.

하기에 오광석동무는 깎적공업대학 (당시)을 졸업한 그 때로부터 땅속을 들여다보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애오라지 하나의 생각으로 탐구의 길을 걸었다.

이 나날에 그는 서해감문건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던 중요한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수 있었으며 재해 탐사기구를 리용하여 현대적인 지하단층촬영도 대담하게 시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질구조의 영상자료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1994년 7월에는 마침내 땅을 뚫지 않고도 땅속을 들여다보는 기계인 우리 식의 CT탐사기구를 연구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파라는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만들어낸 이 기계를 것처럼 바라시던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릴수 없게 된 오광석동무의 가슴은 찢기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주저않고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안고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결연히 일하였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과학실험기구연구집단의 실장으로 사임하게 된 오광석동무는 리성국, 강명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함께 CT탐사기구를 더욱 완성하여 지질탐사부문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탐사문제를 푸는데 달려붙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당사까지 지질탐사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던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

리는 시추탐사를 지나 할수 없게 된 조건에서 땅을 뚫지 않고도 땅속 상태를 알아내는 CT탐사기구에 대한 연구는 날을 따라 높아갔다.

최두성, 고성룡, 김창남, 조문걸 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측정부분과 컴퓨터영상표시장치, 여러개의 측정전극과 측정선으로 구성된 CT탐사기구를 더욱 완성해나갔다.

간단한 기구로 땅속에 있는 유색 금속과 석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체들의 위치와 규모, 방향과 매장량을 정확히 알아낼수 있을뿐 아니라 지하수탐사와 연제를 비롯한 구조물의 기반조사에도 다 적용할수 있는 이 기술은 가는 곳마다서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하루에 2~3명의 적은 인원으로도 3km의 로신을 탐사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막대한 탐사원가와 로력, 시간 등의 절약으로 얻어지는 실리 또한 대단하였다.

과학자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CT탐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식의 감도조정원리를 새롭게 내놓았다. 첨단기술의 하나인 이원리의 적용으로 땅속 백억m 깊이에 있는 광물체도 정확히 식별할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시기에는 어려웠던 수백m깊이의 지질구조의 영상자료도 얻어낼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과학실험기구연구집단이 개발한 CT탐사기술에 의하여 이미 저지 않은 광산, 탄광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확장되었으며 수력 발전소건설장들에서는 연제기반 조사와 저수지의 물이 새어나가는 통로를 미리 찾아내어 필요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

제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발전소를 만년대기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이들은 은 불광산 청년광부의 바다물류업통로를 정확히 찾아내어 철광석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최천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건설, 어느 한 탄광의 능력확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지질탐사와 관련한 수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이 나날에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말씀과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으며 2006년에는 《2.16 과학기술상》도 수여받았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실장 박사 오광석동무는 말하였다.

《사실 실리가 큰 CT탐사기술의 개발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훌륭한 연구공저자는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질탐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탐사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 과학자의 심정만이 아니라 이 땅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불같은 맹세를 안고 7월이 뜨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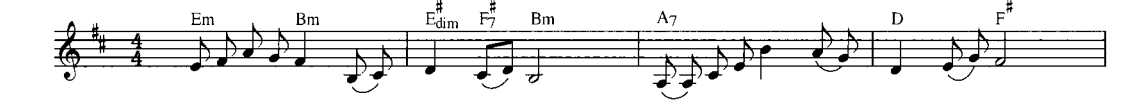
가장 깨끗하고 열렬한 총정의 한 마음으로,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넘진인 사회주의강대국의 래일을 앞당겨가는 이런 총직한 인민이 있어 이 땅에는 영원히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활기차게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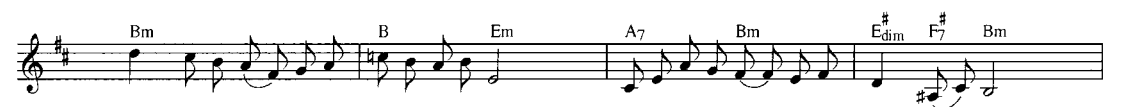
희 천 의 불 빛

정서적으로 밝게 (J=72)

작사, 작곡 황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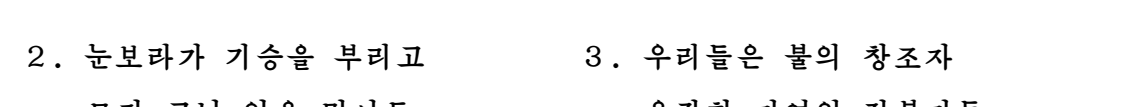
1. 땅우에는어 둠이 깃 들-고 인제우엔칼 바람 세 차-도



꺼 질줄모-르는 희천의불빛 건설자의열정인가 빛 나-네



아 희천의불빛 건설자의열정인가 빛 나-네



2.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 3. 우리들은 불의 창조자

모진 고난 앞을 막아도 용감한 자연의 정복자들

뜨겁게 고동치는 우리의 심장 산과 강 막으며 쌓은 언제는

그 누구도 식히지 못하리 내 조국의 찬란한 빛이 되리

아 희천의 불빛 아 희천의 불빛

건설자의 신념인가 빛나네 건설자의 긍지인가 빛나네

석탄전선의 전초병원 긍지높이

석탄채굴공학연구소 과학자들

7월이 오면 누구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사무쳐있다.

석탄과학부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의 심정도 다를바 없다. 이들은 석탄공업발전에서 쌓아올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고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맹세로 가슴 불태우며 뜨거운 혁명적 열정을 추복발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대대손손 전하며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의 석탄공업을 발전시키는데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라고 하시던

서 석탄공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굴진을 제련에 확고히 앞세워 대한 문제, 탄광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성능이 좋은 채굴설비를 많이 개발할데 대한 문제, 능률적인 여러가지 채탄법을 연구도입할데 대한 문제 등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어버이수령님,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설계한 각종 최첨단설비를 보아주시고 탄광들에 일방화하도록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무간주채탄법과 면봉피식채탄법을 연구도입하여 석탄생산을 훨씬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과학자들이 례로써 영웅적 호응을 주며

룩 하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그날의 그 영광, 그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는 이곳 과학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현실로 활짝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인과 뜻을 받들어 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2. 8직통청년탄광에 나간 발파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한계 굴진장소에서 높은 수준의 굴진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기 위해 분초를 쫓아가며 헌신하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연구사업에 달려붙은 청동발파연구소의 일꾼들은 탄광에서 높은 수준의 굴진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기 위해 분초를 쫓아가며 헌신하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첨가제를 넣어 그 효과성을 종전보다 1.2~1.3배로 올릴수 있게 하였다. 이에 만족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장마철에도 발파효율을 개선할수 있게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나라의 재부를 늘여가려는 불타는 열정으로 탄광에서 나무동발을 대용할수 있는 연구사업에 달려붙은 청동발파연구소의 일꾼들은 탄광에서 높은 수준의 굴진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기 위해 분초를 쫓아가며 헌신하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연구사업에 달려붙은 청동발파연구소의 일꾼들은 탄광에서 높은 수준의 굴진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기 위해 분초를 쫓아가며 헌신하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일꾼들, 기술자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있다.

영광의 그날을 안고사는 마음

린 산 약 초 농 장 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로씨야 동포일행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일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일행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신길읍 도교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중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로씨야 이고리 모이쎬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야민속무용단

사 리 원 에서 공연

【사리원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 이고리 모이쎬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야민속무용단이 1일 황해북도예술극장에서 공연하였다.

리상관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초영 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꾼들, 도내 문화예술투부 창작자, 예술인들, 교원, 연수사,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널리 알려진 무용단은 로씨야인민이 사랑하는 전통적인 민속무용들과 여러 나라 민족들의 무용들을 펼쳐놓아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출연자들은 조국전쟁시기 장적지역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조련인민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빨치산들》과 《월계라》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로씨야인민이 지닌 애국주의정신과 감정을 잘 보여주었다.

황해북도예술극장을 비롯한 종목들은 높은 예술적교양과 재민 안산발로 하여 관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성공을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었다.

메 히 꼬 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펠리페 깔데론 이노호사 메히꼬합중국 대통령에게 안근성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6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펠리페 깔데론 이노호사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

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뜻깊은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의 통일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조선의 발기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로씨야 동포일행 경의 표시

대성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1일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존경하게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통성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담아 그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이 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단정대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향집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그의 일가친척들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그분들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오늘 조선 인민은 김정숙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밖에 대표단은 주체사상과 국제친선전환관, 판문점 등을 참관하였다.

중국 국가라지오영화TV방송총국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전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국가라지오영화TV방송총국대표단이 1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교합집을 찾은 손님들은



재로씨야 동포 정일심일행 도착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비행장에서 리일발 조선중앙총장 방 조선로동당 1 제로씨야동포 정일심일행이 1 령사연구소 부 일 평양에 도착 소장이 맞이 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이 떠나갔다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제 17차 세계청년학생총회 제 2차 국제준비회의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 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련맹 대성행사에 참가하였던 디 아고 알레한드르 페라즈 비에이라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

전국도대항총합체육경기 대회 폐막

6월 15일에 개막되었던 전국도대항총합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각 도에서 선발된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대회에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전에 이바지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황해남도선수들은 축구 (녀자), 룡구 (남자), 유술 (남자, 녀자), 마라톤 (남자) 등의 경기에서 우승하여 종합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함경남도선수들이 2등을, 평안북도선수들이 3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6월 30일 해주 경기장에서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재일조선중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박초호를 단장 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하는 재일조선중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하였다.

재일조선중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명호 대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

고향땅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로산고치생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많은 혁명사업 성과를 올리고있다.

그러하여 고향산천을 아름답게 꾸려 강성대국의 대문에 당당히 들어설 불타는 일면안고 모든 종업원들이 한사관같이 떨쳐나섰다.

도로타기와 꽃밭조성을 비롯하여 마을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들의 뜨거운 향토애와 애국의 열정속에 마을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로동동원원 리 옥 경

사업에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고향산천을 아름답게 꾸려 강성대국의 대문에 당당히 들어설 불타는 일면안고 모든 종업원들이 한사관같이 떨쳐나섰다.

도로타기와 꽃밭조성을 비롯하여 마을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들의 뜨거운 향토애와 애국의 열정속에 마을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로동동원원 리 옥 경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

조직대표단, 대표들이 떠나갔다

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대표단, 남아프리카학생대회대표단, 네 팔친국민주청년련맹대표단, 전네 팔친국자유학생동맹대표, 도이힐란드사회주의로동청년대표,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대표, 서부사하라유세라오청년대표, 스페인학생총동맹대표, 세네갈민주청년련맹대표, 인디아민주청년련맹대표, 핀란드청년련맹대표, 벨라루스 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 쿠비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 키르그리스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 보르투갈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 라틴아메리카대학생기구대표, 이에 앞서 레바논민주청년동맹대표, 수리아혁명청년동맹대표, 요르단민주청년동맹대표, 에스파냐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 팔레스티나청년조직대표, 아랍학생총동맹대표가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

기념로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핀란드, 방글라데슈에서 6월 14일과 16일에 토론회들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들에는 캄보쟈 크메르민중당,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방글라데슈 보리살신공정직연구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캄보쟈 크메르민중당 위원장 유 프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정일원수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일원수각하께서 건국하시어 나라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숭고한 업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기께서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선장과 세계사주위업수행에서 획

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출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심으로써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계신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는 《세계화》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간섭을 포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애국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정치이다.

핀란드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줄것이라고 확신한다.

방글라데슈 보리살신공정직연구회 고문 영. 자한기르 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령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그리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의 선군혁명명령이 우리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된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축적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기념로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핀란드, 방글라데슈에서 6월 14일과 16일에 토론회들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들에는 캄보쟈 크메르민중당,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방글라데슈 보리살신공정직연구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캄보쟈 크메르민중당 위원장 유 프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정일원수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일원수각하께서 건국하시어 나라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숭고한 업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기께서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선장과 세계사주위업수행에서 획

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출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심으로써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계신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는 《세계화》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간섭을 포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애국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정치이다.

핀란드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줄것이라고 확신한다.

방글라데슈 보리살신공정직연구회 고문 영. 자한기르 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령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그리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의 선군혁명명령이 우리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된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축적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그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중심이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유일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문 주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강철같은 규율을 지닌 불멸의 혁명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리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셨으며 강성대국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범파당은 《경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자하여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조선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합침투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정쟁의 불씨를 불어넣었다.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

구 바에서 개막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 개막식이 6월 18일 구 바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구 바기발이 드러워져있다.

개막식에는 구 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구 바 제민간의 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구 바위원회, 구 바전국혁명수호위원회 의원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구 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사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구 바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통일지지 구 바위원회 제

1부위원장 후안 호세 베는 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무찌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에서 교훈을 찾을 때 늦지 않았고 조선에 수많은 침략부대를 주둔시키고 각종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또다시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이 길을 그 후구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첫부시면서 조국

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최근 미제와 남조선조국통일당은 《천안》호침몰사건을 낱조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전경질정도로 몰아가고있지만 조선인민을 절대 굴복시키질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올해는 고려민주원방공화국창립반대선지 30돐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통일지지 구 바위원회의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주 제 범 은 샷 대 질

최근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과 미국을 사 리드나 홀브루크가 파키스탄이 이란과 거래를 하는데 《심중》해야 한다느니, 《경고》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목청을 돋구었다. 파키스탄과 이란사이에 체결된 가스수송관협정이 저들의 반이란제책등에 파멸로우 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중지를 놓으라. 이것은 미국식기만성에 뿌리를 둔 주체범은 샷대질이고 내정간섭악습의 연장이다.

문제는 그때 세상만사가 미국의 뜻대로만 되어야 하는가, 누구도 미국에 남의 일에 간섭하고 샷대질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지향과 리익에 따라 다른 나라와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자기의 《명치》도 속국도 아닌 파키스탄의 내정문제에 코를 들이밀고 혼신할 권한이 없다. 적잖이 미국은 파키스탄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응당 저들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렇지 않겠는가? 남의 잔치상에 감놓아 배 놓아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며 지어는 그 무슨 《경고》까지 할수 있겠는가.

홀브루크의 무례한 처사야말로 초대국주에 사로잡혀 남을 깔보고 내리누르는데 습관된 미국의 오만방자함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제 잘난체 하면서 계속 건장하게 늙아가는 어때든 큰코 다칠수 있다.

【본사기자】

미국은 자기의 《명치》도 속국도 아닌 파키스탄의 내정문제에 코를 들이밀고 혼신할 권한이 없다. 적잖이 미국은 파키스탄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응당 저들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렇지 않겠는가? 남의 잔치상에 감놓아 배 놓아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며 지어는 그 무슨 《경고》까지 할수 있겠는가.

홀브루크의 무례한 처사야말로 초대국주에 사로잡혀 남을 깔보고 내리누르는데 습관된 미국의 오만방자함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제 잘난체 하면서 계속 건장하게 늙아가는 어때든 큰코 다칠수 있다.

【본사기자】

미국은 자기의 《명치》도 속국도 아닌 파키스탄의 내정문제에 코를 들이밀고 혼신할 권한이 없다. 적잖이 미국은 파키스탄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응당 저들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렇지 않겠는가? 남의 잔치상에 감놓아 배 놓아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며 지어는 그 무슨 《경고》까지 할수 있겠는가.

홀브루크의 무례한 처사야말로 초대국주에 사로잡혀 남을 깔보고 내리누르는데 습관된 미국의 오만방자함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제 잘난체 하면서 계속 건장하게 늙아가는 어때든 큰코 다칠수 있다.

【본사기자】

전체 인민의 단결을 호소

모잠비크대통령 아르만두 에 밀리우 게부자가 6월 25일 독립 35돐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모잠비크는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힘을 합쳐 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빈국을 청산하는것은 정부의 주요과업의 하나라고 밝히고 그는 모잠비크인들이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모잠비크대통령 아르만두 에 밀리우 게부자가 6월 25일 독립 35돐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모잠비크는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힘을 합쳐 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빈국을 청산하는것은 정부의 주요과업의 하나라고 밝히고 그는 모잠비크인들이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의 길로 나가야 한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뿔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유제트와 후트가 6월 18일 대화록을 발표하였다.

그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유엔군》의 간섭밑에 여기에 저들의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였다.

용감한 조선인민은 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였으며 미국은 청산할 공화국과 정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적경제건설을 다그치면서 동시에 미국에 정전협정을 공한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다른 제안을 여러차례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이에 전쟁도발책동으로 대답하였다.

맹전이 종식된 때로부터 많

은 세월이 흘렀으나 조선반도에서는 정전상태가 반세기나 계속되고 정전위협은 여전히 가시되지 않고있다.

조선은 두차례의 핵시험을 통하여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조선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다.

오늘 미국의 핵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무용지물로 되고있다.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생활을 창조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에 반함이었다.

조선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자기 인민의 남침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치이다.

미국이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상민중하게 마주앉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며 조선과 평화협

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압살정책을 평화와 공존정책으로 바꾼다면 미국과 선린관계를 맺을수 있다는 립장을 이미 천명하였다.

미국은 전쟁위협으로 조선인민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행정부들이 잘못걸어온 길에서 행장부가 바로잡으면 안되는 리유는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진두에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지 못할것이다.

미국은 조선전쟁과 정전협정이 바로 자기들에게 의하여 산생된 핵사상의 검은 한때지임을 똑바로 인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다시한번 뚜렷이 파시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수엘라가 6월 27일 자기 나라를 방문한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와의 회담장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수리아 두 나라의 공동의 원수들인 《양키제국》과 유대복고주의정권과 맞서고있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그는 미국의 비호밑에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 대량살륙행위에 미쳐달려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6월 27일 베네수엘라방문과정에 한 발언에서 이스라엘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의 자지대에 대한 봉쇄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현 유대복고주의정권을 온갖 범죄와 대살상행위를 일삼는 극단적인 정권으로 일삼았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당국의 간계에 절대 말려들지 않겠다고 하며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그는 미국의 비호밑에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 대량살륙행위에 미쳐달려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6월 27일 베네수엘라방문과정에 한 발언에서 이스라엘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의 자지대에 대한 봉쇄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현 유대복고주의정권을 온갖 범죄와 대살상행위를 일삼는 극단적인 정권으로 일삼았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당국의 간계에 절대 말려들지 않겠다고 하며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아나 미군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로진》에 들어치는 미군이 아니라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계속 북아나고있다.

6월 25일 미국방성은 아

프가니스탄전쟁개시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죽은 미군수가 1044명에 달하였다 고 밝혔다.

【본사기자】

일본의 주장을 배격

중국의교부 대변인이 6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무리나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수상이 후엔미군기지일탈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일미군이 《역적역할》을 하고있느니, 중국의 군비증강을 심각하게 주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격렬한것과 판

연하여 그는 중국은 이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미동맹은 제3국을 겨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로서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또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본사기자】

일본의 주장을 배격

중국의교부 대변인이 6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무리나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수상이 후엔미군기지일탈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일미군이 《역적역할》을 하고있느니, 중국의 군비증강을 심각하게 주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격렬한것과 판

적들의 위협책동에 대응할 립장 천명

이란 이슬람교혁명군위대해군사령관이 최근 적들의 위협책동에 강경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당한 유엔결의에 기초하여 끝끝내 이란선박들을 위협한다면 이란해군부대는 이에 단호히 맞서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오늘 자기 나라의 군사력은 현재까지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해군부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적들을 정벌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적들의 위협책동에 대응할 립장 천명

이란 이슬람교혁명군위대해군사령관이 최근 적들의 위협책동에 강경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당한 유엔결의에 기초하여 끝끝내 이란선박들을 위협한다면 이란해군부대는 이에 단호히 맞서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오늘 자기 나라의 군사력은 현재까지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해군부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적들을 정벌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적들의 위협책동에 대응할 립장 천명

이란 이슬람교혁명군위대해군사령관이 최근 적들의 위협책동에 강경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당한 유엔결의에 기초하여 끝끝내 이란선박들을 위협한다면 이란해군부대는 이에 단호히 맞서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오늘 자기 나라의 군사력은 현재까지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해군부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적들을 정벌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나토군에 대한 공격 강화

아프가니스탄항쟁세력이 자기 나라에 주둔해있는 나토군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강화하고있다.

6월 27일 동부지역에서 2명의 나토군병